

로 마 선 언

기रो에 선 인류: AI와 핵무기에 관한 선언

2026년 7월, 바티칸 '찬미받으소서 학교(Borgo Laudato Si')'에서 개최된
글로벌 노벨상 수상자 총회에서 채택

전문

인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핵무기 시대가 시작된 지 80여 년이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처럼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류 공동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안겨준 적은 없었다.

핵무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세상에는 항구적 공포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 인류는 지금까지도 핵전쟁에 의한 절멸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역시 유사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 시스템에 내장된 AI는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아예 인간의 판단 자체를 대체해버릴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핵보유국 간 상호 경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AI는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고 핵보유국 간 경제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는 핵심적 민간시설과 전략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능력을 증폭시킨다. AI는 정보전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평화는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의존한다. 사실이 없다면 진실도 존재할 수 없고, 진실이 없다면 신뢰도 있을 수 없다. 신뢰가 없다면 국가 간 대화도, 검증도 불가능하며, 자제력도 발휘될 수 없다.

최첨단의 AI 역량, 컴퓨팅 자원,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는 점점 더 소수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협력 동력을 제약하고 있다. AI는 경제적·군사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기술이며, 인류 역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에 못지않게 위험한 AI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다양한 종교들의 전통이 공유하는 가치에 근거하여 인류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촉구하였다. 우리는 공포와 지배, 또는 상호파괴의 영구적 위협 기반 위에 지속 가능한 안보가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거부한다. 안보는 상호파괴의 현실 위에 영원히 의존할 수 없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천명한다.

1. 미래 군비 경쟁의 해체

우리는 AI가 과거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경쟁의 장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 최첨단 AI 개발자, 연구자,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익 공유 메커니즘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 인간의 복리에 기여하는 AI 활용 촉진, 극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AI 활용에 대한 자제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여나가고 선택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AI와 핵무기 기반 군비 경쟁이 인류의 다음 세기마저 좌우하기 전에 이것을 해체해야 한다.

2. 책임있는 개발

AI 개발자들은 자사 모델의 작동방식을 규정하는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AI는 국제법과 인권 존중을 포함한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조직도 재귀적 자기개선이 완전 자동화되고 감시 및 시스템 중단 기능이 없는 AI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정부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3. 책임있는 AI 사용

자동화된 시스템이 핵무기 발사를 위한 최종 결정을 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 지휘·통제·발사 체계와 AI와의 무분별한 통합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AI가 핵심 핵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작전과 공격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핵보유국은 AI에 의한 무단 통제나 조작 가능성에 따른 핵무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핵전력의 안전성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복지 개선, 과학과 의학의 발전 촉진, 환경 보호, 회복탄력성의 강화, 그리고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지지한다.

4. 책임있는 거버넌스

우리는 정부, 기업, 국제기구가 검증 및 강력한 내외부 평가제와 같은 공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최첨단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도록 조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AI에 관한 유엔 독립 국제과학 패널’을 지지하며,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 정신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제적 노력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국제적 AI 거버넌스와 미래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와 대화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5. 책임있는 리더십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결국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한다. 젊은이들은 교육, 멘토링, 세대 간 파트너십, 그리고 모든 지역·문화·공동체에의 포용적 참여를 통해 핵무기와 AI를 비롯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 책임감, 비판적 사고, 미디어 및 AI 문해력, 그리고 평화 문화를 함

양하는 교육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인류가 수많은 상호 연결된 위협과, 해당 기술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는 핵무기, 규제되지 않은 AI 및 기타 실존적 위협에 관한 이해와 대응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디지털 공공재의 구축을 촉구한다.

6. 핵군축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의 폐기를 목표로 하는, 긴급하고 지속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국제협상을 합의된 시한 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항구적인 안보의 수단으로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담긴 인도주의적·법적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핵보유국들에게 새로운 군비 경쟁과 핵무기 증강 중단, 군비 통제와 군축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상 재개, 국제법상 의무와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한다. 핵보유국들은 검증 가능한 군축과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핵전력의 경고 수준을 낮추고, 사용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늦추고, 경보 즉시 발사 및 즉각 보복 태세를 버리고, 안보 doktrin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위기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핵 지휘·통제·통신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고, 오해와 오판 및 의도하지 않은 확전을 예방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선제 사용 및 파멸적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과 군사교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잊으십시오.” --버트란드 러셀과 알버트 아인슈타인

번역 성기영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감수 김성철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